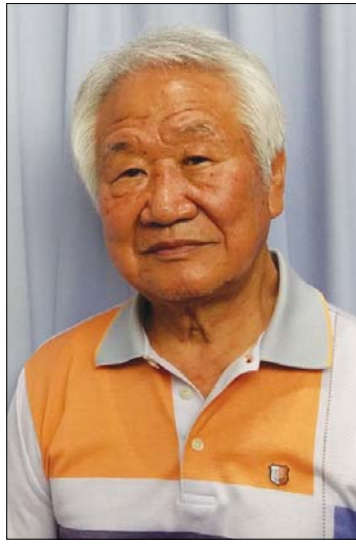


# 기억에서 사라진 전통문화 그리고 사람들의 이야기



윤영근 회장

▶ 국립민속국악원 콘서트 '다담' "잊어진 문화, 잊어진 사람들"

동편제·각설이의 노래 등 작품 남긴 윤영근 한예총 남원지회장 초빙

음악은 전주판소리합창단이 선보여 국립국악원서 27일 무료 공연

국립민속국악원(원장 박호성)은 한의 사·소설가 윤영근 한예총 남원지회장을 초대로 '잊어진 문화, 잊어진 사람들'이란 주제로 국악콘서트 다담을 연다.

윤영근 소설가는 이날 공연에서 관대와 각설이, 풀바 등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져 버린 옛 문화와 사람들의 이야기를 구수한 입담으로 풀어놓을 예정이다.

윤 소설가는 어려서부터 자연스레 전통 소리를 접하며 성장했다.

그는 임방울(일제강점기 우리 민족의 한을 소리로 달래주었던 명창으로 '쑈대머리'를 담은 그의 음반은 100여 만장에 이르는 판매고를 기록할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 선생이 종중 집에 와 머무르며 소리하는 모습을 보고 들으며 자랐다. 또 학교 운동장에 포장을 치고 공연하던 협률사의 소리, 춘향제 때면 명창들이 광한루 위에서 뽐내내는 소리, 서울에서 대학교에 다니던 시절에는 구왕궁 아악부를

찾아가 음악을 들었던 추억을 간직하고 있다.

이후에는 소설가로 활동하면서 소리 관대를 비롯한 시대의 아픔을 간직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수집하고 작품으로 발표해 왔다.

윤영근 회장은 평생 소리와 함께 했던 명창의 일대기를 담은 <동편제>, 장터령 하나로 험한 세상을 거침없이 살아내었던

각설이들의 삶을 그린 <각설이의 노래>, 24살 젊은 나이로 일본 천장절 기념식장에서 폭탄을 터뜨린 윤봉길의 이야기를 담은 <의열 윤봉길>, 간신이라고 낙인찍힌 남원 출신의 유자평을 재조명한 <유자평전> 등 50여 편의 작품을 발표했다.

국악콘서트에 더해질 음악은 전주판소리합창단이 맡는다. 이들은 신재효 선생이 만든 단가 '관대개'를 비롯해서 '상주 함

창', '내 사랑 진재선', '바람아 완산 칠봉 바람아' 등 판소리의 역사와 지역적인 색채가 담긴 소리들을 판소리 합창이라는 독특한 형식으로 들려줄 예정이다.

오는 27일(화) 오전 11시 국립국악원 예음헌에서 열리는 공연은 전석 무료.

\*공연 예약은 국립민속국악원 063-620-2327.

/정해은 기자

## ▶▶ 공연 & 전시 ◀◀ 전통음악부터 양악까지 도내 곳곳 연말 공연 잇따라

오늘 고창 동리국악당서 '송년 국악잔치'

국악의 진한 맛과 멋을 전하고 알리기 위해 올 한해 구슬땀을 흘렸던 고창의 국악인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2016 송년 국악잔치'가 오는 21일 오후 2시에 동리국악당에서 열린다.



이번 무대는 국악의 성지인 고창에서 국악을 통해 인연을 맺은 단체와 개인이 한자리에 모이는 자리로, 서로의 소리를 알아 주고 속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라는 뜻을 지닌 지음(知音)들의 음악적인 교류의 시간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공연에는 만정 소리보존회, 고창판소리보존회, 사물놀이팀 울림애를 비롯해 정수민 명창과 김응경, 김수지, 김혜인, 은하성, 권민정 등이 무대에 오르며, 전통예악원 누리춤터의 태평무와 한량무, 이순단 송재영 명창의 단막창극 뽕파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선보인다.

박우정 군수는 "뜻깊은 공연을 통해 그동안 열심히 땀 흘리고 성실하게 보낸 군민 여러분들이 마음의 위안을 얻고 한해를 잘 마무리하면서 새로운 해를 준비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연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의전당 사무실(063-560-8041), 동리국악당 사무실(063-560-8065)로 문의하면 된다. 공연은 무료. /고창=김영식 기자

내일 군산시립교향악단 'ADIEU 2016' 음악회

군산시립교향악단이 한해를 마무리하고 희망찬 신년을 맞이하는 음악회를 오는 22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선보인다.

이번 음악회는 군산시민의 사랑과 응원으로 성장한 시립예술단이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무대로, 1부에서는 코플랜드의 '보통사람을 위한 광곡'이 가장 화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내외 대표 성악가 소프라노 강혜정, 메소소프라노 양승미, 테너 박재화, 베이스 양희준과 군산시립합창단 등이 함께 환희와 인류애의 메시지를 감동의 하모니로 펼칠 예정이다.

이번 공연은 초등학교 이상 무료이며, 금강방송(www.kan.tv)을 통해 예매가 가능하고 현장티켓은 공연당일 저녁 6시30분부터 선착순 배부한다. /군산=문정근 기자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 '강렬했던 천재 화가의 삶과 열정'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  
내일 '에곤 실레' 상영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은 천재 화가의 불꽃같은 생애를 담은 영화 <에곤 실레: 욕망이 그린 그림>을 22일 상영한다.

이 영화는 20세기 초 유럽을 대표하는 표현주의 화가로 죽음에 대한 공포와 내밀한 욕망을 거친 타치로 그려내 당대 시대상을 담아냈다는 평을 듣는 오스트리아 천재 화가 에곤 실레의 짧지만 강렬했던 삶을 다룬 작품이다.

감독 디에터 베르너는 그의 단 하나인 시상으로 알려진 발리 노이질을 포함해 그에게 영감을 준 네 명의 뮤즈와의 이야기를 그려낸다.

에곤 실레를 연기한 노아 사이베드는 매력적인 예술가의 모습 뿐 아니라 트라우마로 인해 나약한 영혼을 가진 청년의 모습을 섬세하게 표현했다.

오스트리아, 체코 등 유럽의 아름다운 풍경을 즐길 수 있는 <에곤 실레: 욕망이 그린 그림>은 제2회 부산국제영화제에 초청되어 3회차 상영 전석 매진을 기록했으며, 많은 관객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는 작품이다.

\*자세한 내용은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 홈페이지(http://theque.jiff.or.kr). \*문의 063-231-3377. /정해은 기자



### 천경자 '미인도'... 검찰 조사결과는 '진품'

## 프랑스 감정단은 '위작'

공동변호인단 "검찰, 아직도 구태의연한 태도로 우롱" 반박

뤼미에르 테크놀로지, 오늘 오전 검찰 발표에 대한 성명 발표

천경자 '미인도' 위작 논란이 종지부를 못했고 있다. 19일 '진품'이라고 발표한 검찰과 달리 고소인(고 천경자 화백의 차녀 김정희)과 공동변호인단은 수긍하지 못하고 있다.

공동변호인단은 "검찰이 발표한 미인도 진품 결론은 비과학적 검증과 이른바 자체의 과학적 수사라는 것을 그럴듯하게 조합해 만든 조작"이라며 "대한민국의 검찰은 아직도 구태의연한 자세로 과학을 조롱하고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특히 "미인도 수사는 검찰이 형평성을 잃고 국립현대미술관과 결탁해 진행했다"며 "피고발자와 검찰이 공조하여 미인도를 진품으로 만들기 위해 발인 계획적이고 치밀한 음모"라고 주장했다.

공동변호인단은 '미인도'를 감정한 프랑스 감정단인 뤼미에르 테크놀로지의 입장을 근거로 '내검 자체 과학수사'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뤼미에르 테크놀로지는 지난 11월 '미인도'가 진품일 확률은 0.0002%라고 발표했고, 장 베니코 소장은 "미인도가 위작이라는 한 치의 의심도 없다" 전했다.

25년간 논란이 된 '미인도'는 이제 다시 한국을 넘어 세계 감정단과 검증싸움을 부추길 전망이다.

뤼미에르 테크놀로지는 "한국 검찰의 대검 자체 과학수사 결과의 발표문은 내용이 전혀 비과학적이고 비객관적이며 임의적 자료를 모아 놓은 것에 불과하다. 우리 연구소의 25년 이상 축적된 첨단기술과 경험을 그렇게 쉽게 흉내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뤼미에르 테크놀로지 연구소는 21일 오전 프랑스 파리에서 한국 검찰발표에 대한 성명을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미인도 위작 논란과 관련, 지난 4월 천경자 화백의 차녀 김정희씨와 공동변호인단은 바르토메우 마리 국립현대미술관장 등 6명에 대해 "미인도가 천 화백의 작품이 아님에도 진품처럼 주장하고 있다"며 고소 및 고발했다.

공동변호인단은 20일 "검찰이 발표한 미인도 진품 결론의 증거가 허구며 비논리적"이라며 분석 결과를 조목조목 반박하는 자료를 언론에 공개했다. /뉴시스



### 전통문화전당, 내년 1월 겨울방학 체험프로그램 운영

한국전통문화전당은 겨울방학을 맞아 아이들이 전통문화에 관심을 갖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7색 전통문화 큰나무 키움교실을 운영한다.

프로그램은 내년 1월 2일부터 1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프로그램 당 4회씩 총 28회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체험프로그램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팀을 이뤄 진행되며, 손뼉굿·한지공예·순바느질·목공예·칠보공예·우리밀·전통요리 등으로 구성된다.

참가신청은 오는 30일 까지이며, 한국전통문화전당 또는 전주시청 홈페이지 공연·행사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이메일(zzwer@naver.com)이나 팩스(283-1201)로 제출하면 된다. /정해은 기자

### 띠별로 풀어보는 오늘의 운세

홍주미 백운철학연구소 소장 H.P: 010-6890-1468, 홈페이지: http://www.philsilab.com/

2016년 12월 21일

<p><b>▶쥐띠</b> 48년생: 동기간으로 인해 손재수가 발생할 수 있다. 60년생: 뒷사람에게 부탁할 일이 있다면 부당스럽게 않은 선물을 준비해서 찾아가라. 72년생: 다른 사람에게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좋은 운이다. 84년생: 금전운이 좋아지니 자신의 운이 좋을 때 베풀어라.</p>	<p><b>▶소띠</b> 49년생: 금전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는 운이다. 투자는 불리하니 다음으로 미뤄라. 61년생: 결순한 자세를 유지하고 부드럽게 부탁해 보라. 73년생: 자신만만한 일도 실수 할 수 있는 운. 85년생: 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면 일찍 움직이는 것이 좋겠다.</p>	<p><b>▶호랑이띠</b> 50년생: 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면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하나씩 진행해 나가야 하는 운이다. 62년생: 건강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운이다. 74년생: 같은 일을 하는 사람과 같은 목표를 인해 경쟁하게 될 듯. 86년생: 어려움이 있다면 뒷사람에게 조언을 구하라.</p>	<p><b>▶토끼띠</b> 51년생: 자신보다 연장자인 사람으로 인해 근심할 일이 생기는 운이니 주의하라. 63년생: 세밀한 일이나 중요한 일은 다음으로 미뤄라. 75년생: 계약을 체결하고 싶다면 금액을 낮춰야 가능할 것이다. 87년생: 다른 사람의 오해를 살 수 있으니 주의하라.</p>
<p><b>▶용띠</b> 52년생: 출타하면 좋은 일이 생기는 운이니 건강에는 좋지 못하니 충분한 대비가 필요하다. 64년생: 금전운이 좋아지는 시기이다. 76년생: 분주하고 정신없으니 차분하게 일을 진행하라. 88년생: 동기간과 함께 진행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p>	<p><b>▶뱀띠</b> 53년생: 사소한 실수로 인해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65년생: 작은 금액은 얻을 수 있으나 큰 금액에 관련된 것은 기다려야 이루어진다. 77년생: 사고수가 따르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라. 89년생: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 재고해 보라.</p>	<p><b>▶말띠</b> 54년생: 타인에게 베풀면서 상황을 부드럽게 처신하라. 66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도움을 주는 귀인을 만날 수 있는 운이니 주변을 잘 살펴라. 78년생: 편안하지만 재물이 나가는 일이 발생하니 감안하고 움직여라. 90년생: 좋은 일하고 행운을 들을 수 있는 운이다.</p>	<p><b>▶양띠</b> 55년생: 재물에 욕심을 부리면 신상에 좋지 않으니 분수 밖의 일을 계획하지 마라. 67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방해하는 사람이 생겨난다. 79년생: 출행하면 손재수가 따르니 금전관리에 유의하라. 91년생: 혼자 판단하고 혼자 행동하는 것은 실패의 지름길이다.</p>
<p><b>▶원숭이띠</b> 56년생: 다른 사람하고 시비가 발생하는 운이다. 권력을 가진 사람은 오히려 좋은 운이다. 68년생: 부부나 연인 사이에 의견이 마찰될 수 있다. 80년생: 뒷사람하고의 불화가 예상되는 운이다. 92년생: 원형은 삼가는 것이 좋은 운이다.</p>	<p><b>▶닭띠</b> 57년생: 고집은 금물. 자신의 고집으로 인해 주변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 69년생: 미련을 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라. 81년생: 동기간이나 손아랫사람보다는 뒷사람에게 조언을 구해볼 것. 93년생: 미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오히려 좋은 신호임을 기억하라.</p>	<p><b>▶개띠</b> 46년생: 식욕이 따르고 인덕이 생기는 운이다. 58년생: 원하는 것이 있다면 점심시간을 활용해 보라.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70년생: 너무 맑은 물에서는 물고기가 살 수 없는 법이다. 82년생: 한꺼번에 많은 것을 하려 하지 마라.</p>	<p><b>▶돼지띠</b> 47년생: 구설수가 따르는 운이니 반응하지 않고 있으면 후반에는 풀린다. 59년생: 먼저 손해를 보면 후에 더 큰 이익이 따르는 운. 71년생: 문서를 주고받기에 아주 좋은 운이다. 83년생: 이상운이 좋아지니 속마음을 숨기고만 있지 말고 표현해 보라.</p>

띠별로 풀어보는 오늘의 운세

홍주미 백운철학연구소 소장 H.P: 010-6890-1468, 홈페이지: http://www.philsilab.com/

2016년 12월 21일

<p><b>▶쥐띠</b> 48년생: 동기간으로 인해 손재수가 발생할 수 있다. 60년생: 뒷사람에게 부탁할 일이 있다면 부당스럽게 않은 선물을 준비해서 찾아가라. 72년생: 다른 사람에게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좋은 운이다. 84년생: 금전운이 좋아지니 자신의 운이 좋을 때 베풀어라.</p>	<p><b>▶소띠</b> 49년생: 금전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는 운이다. 투자는 불리하니 다음으로 미뤄라. 61년생: 결순한 자세를 유지하고 부드럽게 부탁해 보라. 73년생: 자신만만한 일도 실수 할 수 있는 운. 85년생: 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면 일찍 움직이는 것이 좋겠다.</p>	<p><b>▶호랑이띠</b> 50년생: 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면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하나씩 진행해 나가야 하는 운이다. 62년생: 건강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운이다. 74년생: 같은 일을 하는 사람과 같은 목표를 인해 경쟁하게 될 듯. 86년생: 어려움이 있다면 뒷사람에게 조언을 구하라.</p>	<p><b>▶토끼띠</b> 51년생: 자신보다 연장자인 사람으로 인해 근심할 일이 생기는 운이니 주의하라. 63년생: 세밀한 일이나 중요한 일은 다음으로 미뤄라. 75년생: 계약을 체결하고 싶다면 금액을 낮춰야 가능할 것이다. 87년생: 다른 사람의 오해를 살 수 있으니 주의하라.</p>
<p><b>▶용띠</b> 52년생: 출타하면 좋은 일이 생기는 운이니 건강에는 좋지 못하니 충분한 대비가 필요하다. 64년생: 금전운이 좋아지는 시기이다. 76년생: 분주하고 정신없으니 차분하게 일을 진행하라. 88년생: 동기간과 함께 진행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p>	<p><b>▶뱀띠</b> 53년생: 사소한 실수로 인해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65년생: 작은 금액은 얻을 수 있으나 큰 금액에 관련된 것은 기다려야 이루어진다. 77년생: 사고수가 따르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라. 89년생: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 재고해 보라.</p>	<p><b>▶말띠</b> 54년생: 타인에게 베풀면서 상황을 부드럽게 처신하라. 66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도움을 주는 귀인을 만날 수 있는 운이니 주변을 잘 살펴라. 78년생: 편안하지만 재물이 나가는 일이 발생하니 감안하고 움직여라. 90년생: 좋은 일하고 행운을 들을 수 있는 운이다.</p>	<p><b>▶양띠</b> 55년생: 재물에 욕심을 부리면 신상에 좋지 않으니 분수 밖의 일을 계획하지 마라. 67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방해하는 사람이 생겨난다. 79년생: 출행하면 손재수가 따르니 금전관리에 유의하라. 91년생: 혼자 판단하고 혼자 행동하는 것은 실패의 지름길이다.</p>
<p><b>▶원숭이띠</b> 56년생: 다른 사람하고 시비가 발생하는 운이다. 권력을 가진 사람은 오히려 좋은 운이다. 68년생: 부부나 연인 사이에 의견이 마찰될 수 있다. 80년생: 뒷사람하고의 불화가 예상되는 운이다. 92년생: 원형은 삼가는 것이 좋은 운이다.</p>	<p><b>▶닭띠</b> 57년생: 고집은 금물. 자신의 고집으로 인해 주변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 69년생: 미련을 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라. 81년생: 동기간이나 손아랫사람보다는 뒷사람에게 조언을 구해볼 것. 93년생: 미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오히려 좋은 신호임을 기억하라.</p>	<p><b>▶개띠</b> 46년생: 식욕이 따르고 인덕이 생기는 운이다. 58년생: 원하는 것이 있다면 점심시간을 활용해 보라.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70년생: 너무 맑은 물에서는 물고기가 살 수 없는 법이다. 82년생: 한꺼번에 많은 것을 하려 하지 마라.</p>	<p><b>▶돼지띠</b> 47년생: 구설수가 따르는 운이니 반응하지 않고 있으면 후반에는 풀린다. 59년생: 먼저 손해를 보면 후에 더 큰 이익이 따르는 운. 71년생: 문서를 주고받기에 아주 좋은 운이다. 83년생: 이상운이 좋아지니 속마음을 숨기고만 있지 말고 표현해 보라.</p>